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0년도 표어 ☉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딤후1:1)

☉ 행동지침 ☉

- 1. 하나님의 전(殿)을 짓는 해가 되도록 한다.
- 2.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한 세기가 되도록 한다.
- 3.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는 새 천년이 되도록 한다.

발행인: 이종운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 오늘은 맥추감사절

### 저녁엔 감사찬양예배

오늘은 2000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  
우리 교회는 오늘을 밀 보리 추수를 풍성케 하시고 지난 반 년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로 지내게 된다.  
주일 낮 I·II·III부 예배 시에는 주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한다. 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맥추감사절 특별헌금을

드리는 순서도 있다.

교회학교에서는 부서별로 감사의 행사를 가지며 올해도 풍년을 주시고 지난 6개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유아·유치·유년·초등부 어린이들이 울동과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순서가 있다.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발표

2000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이 발표됐다.  
올해 교회학교 여름행사는 11일(화) - 14일(금) 2박 3일간 산음휴양림에서 가지는 대학부 수련회를 필두로 8월 첫째 주에 마치는 청년부 수련회까지 약 한달 간 진행된다.  
이번 여름행사의 전체 주제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해 표어에 맞추어 각 부서별 특징에 따라 정했다.  
방학기간에 집중적인 영성훈련의 기회를 갖고자 마련된 교회학교 행사에 온 성도의 관심과 참여가 요청된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 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 7월 주요 행사개시판

일자	행사
2일	맥추감사절 교구일꾼 임명식
4, 5일	교구일꾼 수련회
11일(~8월 1일)	교회학교여름 행사
25일	테마전도주일 새가족환영회(찬양예배 시)

### 가까운 친척 모셔오기

7월 테마전도

이 달 마지막주일인 25일 테마전도의 주제는 "가장 가까운 친척 모셔오기".

전도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일을 테마전도주일로 정하고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달 테마는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척들을 초청해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 교회학교 여름행사 일정 ☐

부서	강사	실사일	장소	주제
유치부	이종운 목사, 최지혜 전도사	7월 21일(금) - 23일(주일)	교회당(유치부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유년부	이종운 목사, 이영희 전도사	7월 21일(금) - 23일(주일)	교회당(유년부실)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초등부	이종운 목사, 신미숙 전도사	7월 21일(금) - 22일(토)	교회당(초등부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중등부	이종운 목사, 용석범 목사	7월 20일(목) - 22일(토)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고등부	이종운 목사, 이성득 목사	7월 24일(월) - 26일(수)	광림수도원(경기도 광주)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대학부	이종운 목사, 정윤돈 목사	7월 11일(화) - 14일(금)	산음휴양림(경기도 가평)	선한 일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청년부	이종운 목사, 고경선 목사	7월 31일(월) - 8월 3일(목)	산음휴양림(경기도 가평)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부	이종운 목사, 이상진 목사	7월 23일(주일) - 24일(월)	교회당(사랑부실)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세요
소망부	이종운 목사, 우심화 목사	미정	미정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 2000년 하반기 신입 교사

교육위원회는 2000년 하반기에 봉사할 각 교회학교의 교사를 추가 임명했다. 각 부서 신입 교사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유아부 = 박재원 송동선 ▲유년부 = 박승현 박희정 임혜경 ▲초등부 = 강은애 곽소은 김지윤 우유명 윤영남 이은영 이종훈 ▲중등부 = 신성훈 황해자 ▲고등부 = 서춘식 박선자 김자경 이송선 최규초 ▲대학부 = 김대웅 ▲청년부 = 박정인 ▲장년부 = 여영숙 이신정 ▲사랑부 = 박재원 서순영 신

정일 오주명 임중현 최봉애 ▲새가족부 = 김은태 박영희 이은진 전하미

### 교구일꾼 수련회 4, 5일 개최

교구일꾼 수련회가 4일(화)과 5일(수) 1, 2차에 걸쳐 열린다.

4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되는 1차 수련회는 30분간 찬양의 시간을 갖고 10시 30분부터 이종운목사의 특강이 진행된다.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은 식사 시간을 갖고 12시 30분부터는 야외로 이동하여 교구별 모임을 갖는다.

5일 새벽 5시 30분부터 시작되는 2차 수련회는 6시까지 이종운 목사의 특강을 가진 후 30분간 교구별 모임을 갖는다. 이어 6시 30분부터는 식사와 친교의 시간을 갖는다.

오늘 임명을 받고 하반기에 수고할 교구일꾼은 2차례에 걸친 수련회 중 1회만 참석하면 된다.

이번 격려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교구 개편 완료에 따라 새로 임명된 교구일꾼들을 격려하고 서로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가운데 교구의 연합과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마련됐다.



#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

## 에베소서 4장 1-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영적이든 물질적이든 질서와 조화가 있는 삶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가 있다는 것은 우주라는 개념과 같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혼돈한 사회 속에서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질서와 조화가 있는 삶을 사는 것인데 이것은 물질의 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과도한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균형 잡힌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소위 건강하다는 것은 균형이 잡힌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이 점은 예외가 아닙니다.

정통 교리를 말하면서 바른 생활이 따르지 못하면 그것은 죽은 정통이 됩니다. 또 생활은 강조하면서 교리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것은 부패한 삶이 됩니다. 그러므로 신앙 생활에는 항상 균형이 잡혀야 합니다.

### 1. 빛과 생명으로 부르심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에서 광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벧전 2:9). 우리는 이와 같이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별거벗은 수치를 드러내고도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았던 어두움의 자식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광명으로 끌어내셨습니다.

빛의 세계로 오면 진리를 보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며 무엇보다 영생의 길을 찾게 되고 깨달아 구할 것을 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므로 바른 예배를 드리게 되며 마땅히 해야 할 섬김의 도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부르셨습니다. “공홀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엡 2:4-5).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을 가진 중생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 2.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자기 위치에 부합한 가치 있는 삶을 말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다섯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은,

첫째, '모든 겸손'의 모습입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로마인은 용기를, 영국 사람들은 신사의 도를, 프랑스 사람들은 미를 각각 자랑했습니다만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은 '모든 겸손'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낮추어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만 겸손은 기독교인의 제일 가는 덕성입니다. 어거스틴은 기독교인의 삼대 덕성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합니다. 사탄은 교만하다가 하나님 앞에 쫓겨난 존재입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사람들이 실패한 대부분의 이유는 교만이었습니다.

둘째, '온유'의 모습입니다. 온유란 하나님께는 기쁘게 순종하고 이웃에게는 구원의 유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습니다(민 12:3).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기를 비난한 미리암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온유한 품성이 하나님의 일꾼이 가져야 할 품성입니다.

셋째 '오래 참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인내의 덕성을 배웁니다. 찌르는 가시가 있고 원통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참는 사람이 오래 참는 사람입니다. 오래 참음은 주님을 따르는 성도가 가져야 할 마땅한 품성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고 계십니다.

넷째,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인의 모든 덕성의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불평 없이 참는 일도 사랑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랑은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며 지혜도 갖게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됩니다. 교회는 죄인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다섯째, '연합'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연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합하지 않는 사람은 21세기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다른 성도와 교회와 연합을 잘 해야 합니다. 성도는 평안의 매는 줄로 화평을 이룰 때 피차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불의와 타협하고 악과 야합하라는 것이 아니고 진리 안에서 화평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유형과 무형 자산이 있습니다. 유형 자산이 물질이나 건강이라면 보이지 아니하는 신앙과 덕성이 무형 자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무형 자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성도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화평을 이루는 무형 자산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와 같은 무형 자산을 소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종운 목사

● 흥해작전 승전을 감사하면서 ●

# 갓고 갈 소중한 것들

정성국 (신학생)

아내와 함께 남대문 시장에 가서 여행용 가방 4개를 구입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객지 생활을 해 온 터라 가방을 싸고 이사하는 일이 낯설지도 않은데, 이번엔 조금 요란을 떨었습니다. 가방 무게 때문에 버리고 가는 책들이 아까워 다시 겨울 옷을 빼고 책 몇 권을 쑤셔 넣어 보지만, 두고 가야 하는 것들에 비하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조금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 물건인지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되풀이 되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마치 모든 것들의 가치가 동일한 양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소중한 분이 있고, 더 가치 있는 삶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일과 더 소중한 분, 그리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그렇지 못한 것들은 가방 속에서 꺼내어 놓아야 함을 배워야 했습니다.

저는 20대를 전부 서울교회에서 보냈습니다. 학교 앞에서 탁구장을 경영하시는 서울교회 어느 여 집사님의 인도로 서울교회를 찾게 된 것이 92년 3월이었습니다. 그간 서울교회는 세계 교회요, 학교요, 집이었습니다. 변함 없는 진리의 말씀이 있었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배고플 때 나를 위해 한 그릇의 따뜻한 밥이 준비된 곳이었습니다. 서른을 문턱에 둔 지금, 이제 교회를 떠나면서 "서울교회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없구나" 라고 고백해야겠습니다. 과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유학을 준비하는 동안, 줄곧 주님께서 제게 던진 영적 도전은 "너는 내가 인도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나"는 물음이었습니다. 신앙 생활의 기술적인 부분에는 민감하면서도, 본질적인 질문들은 잊고 살았던 저를 주님께서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미국에서 새롭게 신학 공부를 하는 동안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학하는 동안 저와 제 아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들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분주한 삶 가운데에서도 본질적인 질문들을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흥해작전이 끝났습니다. 흥해를 건너니 태평양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단순한 삶의 자세는 인생의 여행이 다할 때까지 내려 놓지 않겠습니다.

(skjung21@hanmail.net ; 필자는 아내 성기원 성도와 함께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기 위해 지난 6월 27일 출국했다.)

# 첫 감격을 이야기며

정연택 (권사, 장년부 부감)

흥해작전은 말 그대로 기적의 작전이었습니다. 9년 전, 흥해작전의 많은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우리 가족 모두는 다른 교회에서 서울교회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도 마태복음의 팔복 강제로 마음이 가난해져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위로를 체험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부터 해마다 6월 6일이 되면 기쁨과 감격으로 새벽을 가르며 빠짐없이 작전의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이번 흥해작전에는 임마로서, 아내로서, 교사, 찬양대원, 직분자로서 허리띠를 동이고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거듭남의 새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고 기도하던 중 잃었던 직장에 복직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흥해작전을 며칠 앞두고 집 문제가 해결되어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히 살게 해주시더니... 매일 새벽마다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기쁨과 놀라운 은혜를 혼자 간직할 수만 없어 직장 친구들에게 선전했더니 타 교회에 출석하는 친구는 흥해작전에 함께 참여하여 기도하는 중에 30년 전 빌려주었던 돈을 모두 돌려받게 되어 한달 봉급을 몽땅 감사헌금으로 바쳤다고 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섯 친구가 서울교회 성경대학을 수료했고 흥해를 넉넉히 건너 여호와 닮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20일 간 새벽마다 퍼즐로 새 예배당을 열심히 기도도 지었더니 마음의 성전도 점검되어 더럽고 추한 것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다시 보수하고 온전히 다듬어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도 치장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새 예배당의 건축 기도도 하루 하루 구체화되어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새 예배당을 위한 기도도 빛을 값은 느낌이었습니다.

내년에 새 예배당에 흥해를 건널 생각

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렙니다.

모든 은혜 여호와 닮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 새벽에 발견한 놀라움

오윤걸 (청년부)

새벽 4시가 조금 넘은 시간, 아직도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가게들과 그 주변을 활보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난 놀란다. 주말도 공휴일도 아닌 그것도 이른 새벽에, 이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다가 지금 이곳을 방황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노라면 씩씩한 생각이 든다. 가끔씩 보이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모습은 불쌍하기까지 하다.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본다. 주님을 모르고, 혹은 잊고 살아가면서도 즐거워하는 영혼들을 생각해 본다.

예배 시작 40분 전부터 교회 주변을 가득 메운 교인들의 차량 행렬들을 보며 난 놀란다. 여기저기 성경을 들고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모습에 반가움을 느끼고 교회에서 먼 곳에 주차를 하였기에 감사를 드린다. 조금 전 느꼈던 슬픔은 어느덧 사라져 있음을 발견한다. 희망을 본다. 아브라함이 타락한 도시를 구하려고 간구하던 의인들이 보였기 때문이다.

찬양 연습을 위해 연습실로 가다가 새벽기도에 참여하기 위해 교회에서 주무셨다는 권사님들을 보며 난 놀란다. 당신만을 위해서가 아닌, 교회와 국가, 민족을 위해 쉽없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들로 인해 뿌듯함을 느낀다. 저절로 힘이 생긴다. 그 기도 덕택에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찬양대석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옆 모습을 보며 난 놀란다. 이른 새벽에 그의 얼굴에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땀방울들을 보며 뜨거운 전율을 느낀다. 한국을, 세계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에 힘쓰시는 목사님과 그 말씀에 기초한 서울교회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는 언제 어디서라도 내 지친 영혼을 쉴 수 있게 하는 마음 속 고향이요 안식처다. 나는 그 안에서 언제나 평안하다.

하루를 시작할 새로운 힘이 생겼음에 난 놀란다. 세상이 또다시 나를 만기지만 나는 이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 감사를 드린다.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편지였습니다

# 어디로 가든 예비해 주신 주님

임경민(대학부)

지난 4년을 돌아보면 주님께 드릴 감사의 제목들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처음 미국으로 떠날 땐 저에게 낯선 곳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떠났지만 하나님께선 저를 위해 하나 하나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좋은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적응도 빨리되어서 학교 생활에 더욱더 재미도 붙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어려웠던 점은 그곳의 한국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듬 해엔 보스턴 근교의 학교로 옮기게 되었는데 (이곳이 바로 제가 이번에 졸업한 학교입니다.) 이 또한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

들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많이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공부는 더 힘들었지만 좋은 한국과 미국인 친구들과 선생님들로 아름다운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제일 힘든 시간이라는 3, 4학년 기간은 저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힘든 중에도 밤마다 자기 전에 기도와 성경 읽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구할 것도 많았고 말씀도 필요했고 무엇보다 감사할 게 많았거든요. 특히 "드디어 자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도요.

대학에 원서를 넣는 과정은 어느 나라 수험생들이나 똑같이 힘들 겁니다. 저는 어떤 대학에 원서를 넣어야 할지 몰라서 매일 기도했습

니다. 물론 저희 부모님도 절 위해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 가게 해 달라고요. 그러나 이후에도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시기였습니다. 주님과 약간 떨어진 것도 이때였어요. 성경책엔 먼지만 쌓여가고요.

그러던 중 봄 방학을 맞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제서야 전 잠시동안이나마 제가 얼마나 주님과 멀어졌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선배들에게도 기도 부탁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간 미국 생활은 점차 달라졌습니다. 잊었던 감사도 되찾았습니다.

이제 원하던 대학에도 합격하여 또하나의 감사 제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저에게 소중한 경험들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 하반기 교구 다락방 편성 완료

새 예배당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구·다락방 편성이 완료되어 오늘 I·II·III부 예배 시 일꾼 임명식을 갖고 이번 주부터 새로운 모임을 갖게 된다.

새로 도입된 교구 다락방 편성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가급적 현재 조직을 우선한다 ② 조직은 교구장,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간사(2명)으로 한다 ③ 지역개념을 넘어선 조직도가

능하다 ④ 훈련받지 않은 자 중 부득이 다락방을 맡을 경우엔 서리제도를 도입한다 ⑤ 가급적 3-5 가정으로 다락방을 조직한다 ⑥ 남자 성도를 위한 다락방을 별도로 조직한다 ⑦ 다락방 명칭은 교구-1, 교구-2 등으로 한다(예컨대 1교구 3다락방일 경우 1-3으로 표기한다)

교구별 다락방 현황은 1교구 17개, 2교구 22개, 3교구 28개, 4교구 22개, 5교구 17개, 6교구 13개, 7교구 17개, 8교구 14개, 9교구 17개, 10교구 10개, 11교구 16개, 12교구 14개로 모두 207개 다락방이다.

### 새예배당 방문 새벽기도회 후로

그동안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실시되던 새 예배당 현장 방문이 공사 현장 사정에 맞춰 새벽기도회 후 바로 현장으로 이동한 후 갖도록 변경됐다.

#### ■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3일(월) 충남 온양 동천교회 (박귀환 목사) 위임식에서 설교하며 6일(목)

엔 서울여대 이사회에 참여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김경희 권사·선우종성 집사·정미화 성도가 가정에서 제공했다.
- \* 중등부는 3일(월) 새벽기도회 후 새 예배당 현장을 방문하고 기도회를 갖는다.
- \* 엘리야선교회·에스더전도회는 8일(토) 오후 3시 70인전도대 주력부대로 활동한다.

### 주님, 이 생명을 구원해 주옵소서!

2000년 태신자 명단

전도자	태신자
최양진	홍성남 서덕원 이은순 조금숙 전진옥
한정아	조갑현
이상호	전미영 진용남 김이순
한명순	평화부동산 사장 이영주 이미정
나기태	김진석 박철원
이복규	신미진 김재운
김성준	김예빈
최종시	이정구 신소영

####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섬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새 일꾼

교구	지도	교구장	1간사	2간사
1교구	이상득	하영수	정동호	김인숙
2교구	이상득	황정옥	최홍렬	이자혁
3교구	정운돈	정병무	윤성남	최일춘
4교구	정운돈	임훈규	최차순	박미혜
5교구	고경선	민순구	탁경준	박영옥
6교구	고경선	노송성	박성현	김정란
7교구	고경선	이영기	이상호	진경옥
8교구	고경선	서문석	김광옥	김정운
9교구	이규정	윤봉준	이동만	최영란
10교구	이규정	최종시	김성준	한명순
11교구	이규정	왕경래	이우상	김혜영
12교구	이규정	이변생	김관홍	나기태

## 서울주간기도

###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반기 교구일꾼들을 위해
2.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해
3. 각 부서의 여름행사를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 예배 및 집의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 교회의약도

